

오타루의 추억 - 효고 컬렉션

1975년부터 1980년까지 촬영된 약 5,000장의 사진에 쇠퇴한 오타루가 찍혀 있습니다. 1950년대 이후, 도쿄로 가는 항로는 홋카이도 남동부 연안에 있는 다른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했고, 국가의 에너지 주류도 과거 오타루에서 출하되었던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었습니다. 은행과 기업은 홋카이도 청사를 삿포로로 이전했습니다. 이러한 역경에 대해 삿포로 출신의 프로 사진가 효고 가쓰노(1942년~2004년)는 시내의 사진을 수천 장이나 촬영하여 찍어 버린 바지선, 색이 바랜 간판, 좁은 골목길, 조용한 상점가 등을 기록했습니다.

효고 컬렉션은 1980년대에 부흥 운동이 시작되기 전 오타루를 담아낸 귀중한 기록입니다. 이 작품들은 새로 단장된 창고와 기품 있는 가로등, 매력적인 경관 같은 현재의 오타루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. 효고는 컬렉션을 오타루시 종합박물관에 기증했으며, 엄선된 사진이 순차적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.